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8-12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던 랑가라컬리지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학교이며, 스카이트레인 역과 걸어서 7분정도 거리로 가까운 편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은 깨끗하고, 저는 주로 강의실과 카페테리아,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레벨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이 레벨테스트에서 평가된 성적에 따라 반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레벨1부터 8까지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에 따라 반이 편성되고, 한 세션 당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LEAP4와 LEAP5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숙제가 생각보다 많아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는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실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숙제 이외에도 주로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제는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응할 수 있는 난이도이며, 각 세션마다 발표 과제가 있어서, (LEAP4 2번, LEAP5 1번) 수업시간 외에 따로 만나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수업이나 홈스테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부서와 담당선생님들이 계셔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EAP 프로그램 자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제학생들이 주로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실력 향상이나 다양한 문화 교류 등 학생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I-CAFE, I-CHAT 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늘렸고,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정규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제가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8월 말로 살짝 더우면서도 햇빛이 째쨌해서 날씨가 가장 좋았고, 9월까지의 햇빛이 강하고 선선한 날씨로 여행을 다니기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강해서 선크림, 선글라스도 있다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곳 입니다. 한국의 장마처럼은 아니지만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작지만 바람에 잘 뒤집혀지지 않는 튼튼한 휴대용 우산은 필수이며, 레인부츠나 꼭 레인부츠 아니어도 비에 잘 젖지 않는 신발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은 거의 한달 내내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월은 한국 겨울과 비교했을 때 덜 추운편이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를 하나정도는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키산맥을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패딩을 가져갔는데 12월에는 매일 입었습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이외의 추운 지역을 여행하실 분들은 꼭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밴쿠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국과는 달리 오후 9시만 되도 큰 백화점이나 상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집 주변에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해가 진 이후에는 많이 어둡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 조금 무서웠지만, 적응하게 되면서 부터는 무섭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다운타운이나 노숙자들이 특히 많은 곳을 혼자 다니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랑가라컬리지에서 배정해주는 홈스테이를 이용하였고, 어떤 홈스테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홈스테이는 저 이외에 일본인 학생 한명이 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고, 홈스테이 학생들은 1층(반지하)를 그리고 호스트가족은 2층을 사용했습니다. 반지하의 특성상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어서, 겨울에는 방이 정말 많이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두 번 정해진 요일에 할 수 있었고, 방음이 잘 안돼서 저녁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드라이기 사용 등이 불편했습니다. 방이 넓은 편이었고, 주방이나 거실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주로 씨리얼이나 간단한 토스트, 우유를 스스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홈스테이 호스트가 전날에 미리 준비해 놓은 샌드위치나 전날 저녁으로 먹고 남은 레프트오버를 먹었습니다. 때로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사먹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 카페테리아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팔기 때문에 점심을 챙겨오지 못한 경우에 자주 이용했습니다. (피자, 스시, 샐러드, 스프, 햄버거, 팀홀튼, 등등) 저녁은 주로 홈스테이 가족들과 같이 먹는데, 약속이 있거나 과제를 하느라 저녁에 늦는 경우는 미리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늦게 가서 먹거나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치킨요리나 냉동피자, 파스타 등이 있었습니다. 주로 밀가루</p>

	음식이 많아서 마지막 달에는 친구들과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였고,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주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던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배차간격도 길었던지라 불편했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비가 오는 날은 버스에 사람이 많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TRANSIT이라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교통비가 저렴하지 않은 편이지만, 먼슬리패스를 끊으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95만원	에어캐나다 왕복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순천향대학교에 등록금납부
보험료	1776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국내) 177600원
숙소	8월,12월 달은 1일당 약27달러씩 9,10,11월 830달러씩	
교통비	먼슬리패스 약91달러- 9,10,11,12월 8월과 추가비용	
책값	LEAP4부터는 교재구입 x	
기타2		외식, 여행 등의 용돈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유심칩을 미리 한국에서 구입해가면, 자신에게 맞는 플랜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텔, 4GB 약 5만3천원 플랜을 이용했었는데, 찾아보면 더 저렴하거나 좋은 플랜의 통신사도 많습니다. (미국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지라 캐나다에서 미국유심도 직접 따로 구매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기 전에 외국에서 결제를 할 때에 수수료가 적게나오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은행이나 ATM에서 필요한 만큼 출금을 해서 이용했습니다. 출금할 때에는 수수료 3달러씩 들기 때문에 한번 뺏을 때 많은 금액을 출금했습니다. 3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 따로 캐나다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삼푸, 린스 등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캐나다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옷이나 신발을 더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옷을 구입하는 것은 스타일도 다르고, 텍스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부피가 많이 나가는 옷들은 다이소에서 압축팩으로 압축해서 짐을 싸면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가족이나 친해진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과 편지지를 가져갔었는데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형광펜(4색)과 샤프 기본적인 학용품은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것이 질도 좋고 저렴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랑가라컬리지의 LEAP프로그램은 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제학생들이 컬리지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듣는 과정으로 read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에 집중이 되어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speaking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저는 처음에는 실망과 걱정이 있었지만, 스스로 영어로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다보니 지금은 정확성은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reading, listening, writing을 위해 배우는 모든 영어 지식들이 speaking에도 필요하며, 항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 부터 1학기라는 시간이 영어실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서 과제를 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렸고, 주말에도 관광명소를 간단든지 맛집을 찾아가는 등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환학생을 4학년 2학기 늦게 시기에 가게 된 만큼,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지라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다녀온 후 지금은 다녀온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세션이 끝나고 처음으로 혼자서 미국여행하면서 영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경험을 토대로 취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간단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홈스테이가족들과 베이비샤워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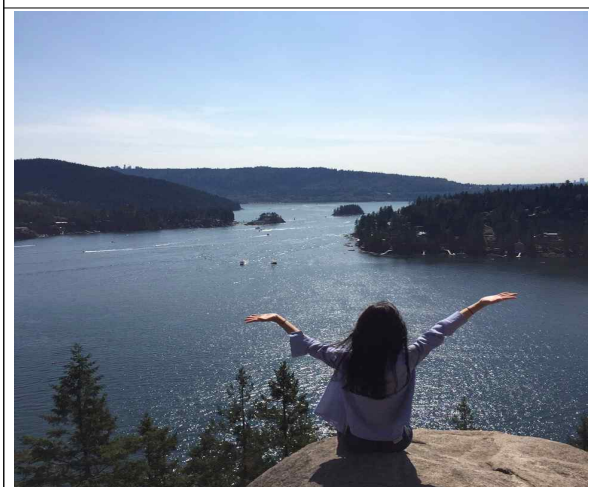
잉글리쉬베이



다운타운 증기시계



빅토리아 여행



노스벤쿠버의 딥코브



리치몬드 Night market